



구례 섬진강, 화개장터

민족의 역사가 흐르다. 섬진강

섬진강 蟾津江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봉황산 상추막이골에서 실날 같은 물줄기로 시작한 섬진강은 진안·임실·순창·남원·곡성 등지의 여러 산봉우리에서 흘러 나온 물줄기를 받아들인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에서 보성강과 합류하여 본격적인 위용을 갖춘 뒤,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 오백리 물길 중 가장 깊고 너른 화개나루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경남과 전남의 도 경계를 이루며 광양군 광양만으로 흘러든다.



구례-광양 간 섬진강변 길

전국에서 가장 맑고 아름답다는 섬진강이 최고의 절경을 빚는 곳은 곡성에서 광양 하구 부근까지 60KM 구간이다. 그중에서도 구례에서 광양까지는 거대한 지리산과 장중한 백운산이 좌우에 바싹 다가서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다. 이들 산에서 흘러내린 깨끗한 계류를 받아들인 강물은 더욱 맑고, 곳곳에 백사장까지 펼쳐놓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내 절경이다. 구례에서 시작된 강변길은 줄곧 강을 떠나지 않고 하구인 광양까지 이어진다.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섬진강 蟾津江>

김용택의 첫 번째 시집으로서, 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민의 삶이 지향하는 원형적인 평화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위기의 극복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래서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는 표제작 「섬진강」 연작시에서 시종일관 농촌의 유토피아적 삶을 서정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농민이 직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 3

그대 정들었으리.
 지는 해 바라보며
 반작이는 잔물결이 한없이 밀려와
 그대 앞에 또 강 건너 물가에
 깊이 깊이 잤아지니
 그대. 그대 모르게
 물 깊은 곳에 정들었으리.

·
·
·

화개장터



화개장터의 역사

화개장 또는 화개시장이라고도 한다.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구례군·광양시의 접경 지역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속한다. 지리산의 영신봉에서 발원한 화개천(花開川)이 성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인 이 지역은 과거에 성진강의 가항종점(可航終點)으로서 행상선(行商船)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상류의 지점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배경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내륙에서 생산된 임산물·농산물과 남해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을 교환하는 장터가 형성되었다. 이곳에 언제부터 장터가 들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시대에 오일장이 섰다는 기록이 있으며, 다른 시장에 비하여 규모도 커서 한 때는 거래량이 전국에서 7위에 오를 정도였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매달 1일과 6일 또는 2일과 7일에 오일장이 열려 지리산 일대의 산간 마을들을 이어주는 상업 중심지이자 영호남 교류의 길목 역할을 하였다. 광복 후에도 매달 1일과 6일에 오일장이 유지되다가 6·25전쟁 후 지리산 일대의 발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촌이 황폐해지면서 화개장도 쇠락하였으며, 이후로도 현대화에 밀려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명맥을 유지하였다.



〈역마〉.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한국적 운명관을 형상화 하다

저자 김동리

장르 소설

발표년도 〈백민〉 12호(1948, 11)

줄거리

하동, 구례, 쌍계사로 갈리는 세 갈래 길목의 화개장터에 자리잡은 옥화네 주막에 늙은 체장수와 열대여섯살 먹은 그의 딸 계연이 찾아온다. 이튿날 체장수는 딸을 주막에 맡겨놓고 장사를 떠난다. 역마살이 끼였다고 10살 때부터 절에 나가 사는 옥화의 아들 성기가 절에서 내려와 집에 머문다. 옥화는 성기를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계연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한다. 어느 날 성기와 계연은 칠불암으로 가게 된다. 둘은 산딸기를 따먹고 나물을 캐고 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진다. 그뒤로 두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간다.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땀아주다가 왼쪽 귓바퀴의 조그만 사마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악양 명도에게 다녀온 뒤로 성기와 계연의 관계를 살피기 시작한다. 체장수가 찾아와 다시 계연은 아버지를 따라 여수로 떠나고 성기는 갑작스런 이별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눕게 된다. 어느 봄날 옥화는 성기에게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해 준다. 체장수는 서른 여섯해 전 남사당을 꾸며 화개장터에 와 하룻밤을 놓고 갔던 자기의 아버지가 틀림없으며 자신의 왼쪽 귓바퀴의 검정 사마귀를 보여주면서 계연은 자기의 여동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이른 여름날, 화개장터 삼거리에는 나무 옻판을 맨 성기가 옥화와 작별하고 육자배기 가락을 부르면서 체장수와 그의 딸이 떠난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으로 길을 떠난다.

● 작품 투시도

